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9~8/2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구경 마음공부	정운	유노북스
2	우리말 지장경	이일영	선문출판사
3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4	묘법연화경	광우, 정목	김영사
5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6	공양간의 셰프들	계호 외	생각의힘
7	금강반야경 문수반야경	김태완	침묵의향기
8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불광출판사
9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	조계종출판사
10	염불각자열전	김성우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서장	고우/전재강	운주사
2	불교사회복지	명안	운주사
3	니까야 강독2	각묵, 대림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 허주형	운주사
5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관학 특강	김성철	오타쿠
7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폴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9	선가귀감	영남불교대학교재편찬	좋은인연
10	아사나 쁘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스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산사의 별식



스님의 맛

장보배 지음

모과나무

2만2000원

산사 24곳의 국수와 삶 이야기

본지 연재 글 새로 엮은 에세이

긴장 내려놓고 수행 여정 위로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사찰에서는 수행 중 별식으로 국수가 나올 때면 스님들이 미소를 짓는다고 해 국수를 '승소(僧笑)'라 부른다. 국수 한 그릇은 스님들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고된 수행길을 위로하는 음식이다.

〈스님의 맛〉은 장보배 작가가 본지에 연재했던 '사찰국수 기행-스님이 웃는다'를 새롭게 엮은 책이다. 덕조 스님과 정관 스님 등 전국 산사 24곳의 스님들의 국수에 얽힌 삶과 수행의 여정을 담았다.

책은 위로, 기억, 수행, 자연, 나눔의 5부로 구성됐다. 제철 재료와 발효 장류로 끓여낸 사찰 국수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산사의 부엌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일상, 수행자의 검박한 생활, 불가(佛家)의 공양 문화, 사찰음식에 담긴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았다.

"반찬은 세 가지를 넘지 않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먹는다." 법정 스님은 맏상좌 덕조 스님에게 이러한 식생활 원칙을 강조했다. 가짓수가 많은 식탁을 대하면 생각이 흐트러지기에 '먹이는 간단명료하게'라는 '부엌훈(訓)'을 걸었다. '불일암 국수'도 이 원칙에 따라 단출하다. 삶은 국수와 채소에 간장, 물, 매실청, 꿀, 참기름, 깨소금을 섞은 양념만 곁들여 깔끔한 맛을 낸다.

정관 스님에게 국수는 수행 중 누리는 여유이자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하는 음식이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8:2 비율로 섞은 면에 무와 무청, 배추, 능이버섯, 건고추로 낸 채수를 곁들인 '능이 배추 칼국수'는 감칠맛과 고소함이 특징이다.

서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기를 낮춰야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동화 스님의 '들깨칼국수'는 혼자 생을 마감하려 했던 이에게 다시 살 용기를 준 음식이다. 무와 다시마 채수에 칼국수를 넣고 끓인 뒤 들깻가루와 찹쌀가루, 미나리를 넣은 이 국수는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단골 보양식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넉넉하지 않은 시절 우담 스님을 키워낸 할머니의 '시래기 국수', 제철 쑥의 향을 살린 주호 스님의 '쑥칼국수', 수박의 달콤함과 동치미의 짭조름함이 조화를 이루는 육통 스님의 '수박동치미 국수' 등 다양한 국수를 선보인다. 정우 스님의 '도토리 묵사발', 우일 스님의 '바질 페스토 스파게티' 같은 이색 메뉴도 만날 수 있다. 각 장 끝에는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와 사진을 수록해 책의 활용도를 높였다.





법정 스님과 함께 나눈 덕조 스님의 '불일암 국수'(왼쪽)와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을 통해 사찰음식 열풍을 일으킨 정관 스님의 '능이 배추 칼국수'. 사진 제공=장보배 작가

이 책은 국수에 얽힌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도반과 신도 등의 인연과 절집의 풍경, 수행의 지혜를 전한다.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은 깊은 선문답 등 다채로운 삶의 서사도 담겨 있다. 나아가 자연의 재료를 온전히 담은 국수 한 끼도 수행의 연장선임을 역설하며, 사찰 공양간이 곧 마음을 닦는 치열한 수행의 공간임을 일깨운다. 주어진 재료를 아껴 쓰고 오가는 이들과 기꺼이 나누며,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가는 '회향'이 공양의 처음이자 끝임을 깨닫게 한다.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북한의 실체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

김용현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1만7000원

'군사국가화' 형성 과정 살펴

"비판보다 이해 · 설득 노력"

북한 전문가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은 오늘날 북한 체제를 '군사국가화'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며 북한의 핵무력·군사력 강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짚어낸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국가화가 1990년대 '선군정치(先軍政治)'와 함께 갑작스럽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기원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김일성을 비롯한 지도부가 무장투쟁의 경험을 권력의 정당성으로 활용했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회 전체를 군사적으로 조직하는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군은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북한을 일반적인 군사정권과 구별한다. 당과 군이 사실상 하나의 체계로 결합돼 정치·경제·사회에도 군사적 사고와 명령·복종의 원리가 깊숙이 스며들면서 북한은 '나라 전체가 군대와 같은' 구조를 갖추게 됐다. 군사화의 영향은 주민들의 일상에서도 나타난다. 군사훈련과 조직생활을 통해 주민들에게 군대식 규율이 내면화되고, 제대군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 배치되면서 군사문화가 확산됐다. 경제 역시 국방 우선의 원칙 아래 운영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저자는 무조건적 비판 대신 북한 실체를 직시하고, 군사적 억지력과 함께 상대를 이해·설득하는 인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열쇠임을 보여준다.

여수령 기자

파랑새가 전하는 마음의 평화



마음 꽃이 피어나요

여태동 지음

여민 그림

시간여행

1만8000원



도안사 108평화보궁에 둥지를 튼 파랑새는 진정한 '행운'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사진 제공=시간여행

108평화보궁에 둥지 튼 파랑새

기도와 가피의 의미 묻는 동화

새가 날아들고, 바람이 불고, 나무에 꽃이 피는 자연의 풍경은 때로 한 편의 법문이 된다. 특히 지친 마음으로 산사를 찾은 이에게 새소리와 바람 소리는 말보다 깊은 위로를 건넨다. 〈마음 꽃이 피어나요〉는 서울 도안사 108평화보궁에 찾아온 파랑새를 매개로 생명과 기도, 가피와 평화의 의미를 풀어낸 동화다.

불교신문에서 30년 넘게 기자로 활동하며 시와 동화를 써온 저자는 도안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파랑새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안사에 찾아왔던 파랑새가 2025년 다시 둥지를 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부처님오신날 무렵 찾아와 새끼를 낳고 떠난 파랑새 한 쌍은 책에서 생명의 법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선재 동자가 있다. 도안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지내며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고 자란 선재는 어느 날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혜자 스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묻는다. 스님의 답은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한다.

"행운은 잎이 네 개가 달려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란다. 네 마음이 고요해질 때 피어나는 것이지."

책에서 파랑새는 선재에게 말을 걸고, 혜자 스님은 파랑새와 교감하며 33관음기도를 올린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도량에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평화의 불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의 해를 맞아 붉은 말의 형상을 보인다. 또 오래 걷지 못했던 할머니가 다시 걷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이가 마음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기도와 믿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동화적 상상력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마음이 관계를 변화시키며, 결국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는 가르침이 담긴 것이다.

선재 동자의 눈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나는 무엇을 행운이라 생각하나', '내 마음은 지금 얼마나 고요한가'를 돌아보게 된다.

혜자 스님은 2000년대 초 '108 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며 새로운 신행문화를 만들었다. 책에서는 스님의 신행과 법문이 파랑새를 만나면서 보다 친근한 이야기로 펼쳐진다.

파랑새가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은 '기적' 자체가 아니다. 생명을 바라보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는 마음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새 한 마리도 법문이 되고, 바람 한 줄기도 위로가 되며, 작은 꽃 한 송이도 삶의 기쁨이 된다.

행운을 찾아 밖으로 떠도는 대신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는 어린이뿐 아니라 삶에 지친 어른들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여수령 기자



틱낫한 스님의 『안반수의경』 해설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인 수식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숫타(안반수의경)』를 틱낫한 스님이 쉽고도 현대적으로 해설하였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옮김/국판변형/192쪽/값 14,000원

교실에서 붓다의 가르침 실현하기

불교로 가르치다

붓다의 대화법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교육 실천서로, 일방 주입식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시드 브라운, 신희정 옮김/신국판/320쪽/값 22,000원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새로운 불교심리학

12개국 38명의 저자가 서양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의 실천적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심리학 모델과 이론을 소개하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모리츠 키 외 편집, 윤희조·박재은 옮김/신국판/872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